

우리나라 現代建築의 位相

韓國建築은 韓國的이어야 한다

— 歷史的 社會的 책임이 수반되어야

李 培 禾

(韓國綜合建築사무소)

『人間社會가 建築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은 原初的인 규범에 속한다.

建築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삶을 담을 수 있고, 마을과 도시가 존재하며, 어느 한 國家社會를 형성시킬 수 있는 決定要素가 성립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建築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다양한 人間表現이 창출되어지고 인간의 제반 文化文明이 창출되어지고 人間の 제반 문화·문명을 잉태시키는 것이다. 때문에 건축은 存在論의 의미뿐만 아니라 現象學的 價値規範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韓國現代建築의 성격을 재음미하고 규명하며, 나아가서는 世界建築文化의 한 기층을 구성하고 있는 한개의 風土文化로서 올바른 방향설정을 강조코자 한다.

오늘날 現代韓國建築은 놀라울 정도로 변모되어 가고 있다.

요즈음 몇년 사이에 건축인 스스로도 변화의 흐름과 방향을 분별키 어려울 정도이다. 이렇게 급변하는 現時代의 建築文化역시 歷史의 한 단면으로서 축적되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없다.

21세기를 눈앞에 둔 오늘의 韓國人 = 韓國建築은 世界 어느나라 못지않게 近世期이래 많은 격동기를 경험하였으며 혼적으로 축적되어 있다. 이러한 시대적 특징은 분명히 한국건축 장르의 「혁명」으로 표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전환기적 도전을 진정한 「우리의 것」으로 소화시키기 위해서 몇가지 관점에서 간략히 位相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近世期 韓國建築의 대전환

韓國近世建築의 서막

서구건축이 한반도에 소개된 時代는 1876년부터라고 말할 수 있다.

즉, 과거 5000년동안 커다란 변화없이 습관적으로 내려온 封建專制主義的 국가체제의 儒敎的 傳統建築樣式이 이 시기부터 처음으로 서구 선진 外部世界에 문호가 개방됨으로써 한반도의 建築歷史에 중대한 변화기를 맞게된 셈이다. 주지하다시피 이 時代 이후 1910년 일본의 무력강압에 의한 한일합방까지 그당시 한반도는 일본, 중국, 소련,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등

세계열강들의 식민지 쟁탈을 위한 전략지역으로 제공되었으며, 이 時代를 계기로 전혀 이질적인 建築樣式이 韓國人에게 소개되어진 것이다.

이러한 과거사실은 다음과 같은 매우 중요한 歷史的 의미를 가지며 또한 한반도의 封鎖傳統社會에 결정적 계기로서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첫째 : 遠心的 動因에 의하여 유입되어 온 새로운 西洋建築樣式, 工法, 材料등이 처음부터 한국 기존건축문화와는 異質的 階層을 형성하면서 파급되었다.

둘째 : 西洋近代建築은 선진열강제국들의 식민지전략을 위한 建築行爲였으므로 처음부터 특수한 건축적 배경을 갖고 있었고 따라서 傳統韓國建築보다 우위적 입장에서 新世代를 의미하는 건축양식의 규범으로 인식되었다.

셋째 : 國民意識의 개화와 함께 과거 폐쇄봉건사회와 엄격한 儒敎備理的 位階社會가 갖고 있었던 傳統都市形態, 전통마을형태, 전통주택형식등이 점차 붕괴되어가기 시작하였다.

植民地時代 建築

1910년 8월22일 한반도는 세계 제2차대전 일본의 패권주의 군국통치에 의하여 강압적으로 합병됨으로써 서양 여러나라에 의한 다양한 절충기적 근세건축활동이 주춤하고 그들의 철저한 식민통치전략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據點式 건축토목활동이 주류를 이루면서 수행되었다.

일본의 전쟁패망과 함께 한반도에 남겨진 식민시대건축은 대강 외교공관, 은행, 학교, 병원을 위시한 공공건물, 영화관,接客업소등의 일반상업시설건물, 驛舍건축물, 그리고 기타 많은 주택등이 있었다.

이들 建築類型的 탄생은 유럽에서 전개되었던 藝術運動史처럼 국민계층에 의하여 유행사

이 글은 대한건축학회지 제33권 제4호(통권149호)에서 전재한 것이다. …〈편집자 註〉

조가 일반대중들 사이에 상호교류 되어지고 흡수되어진 경우가 아니라, 전쟁잔유물이라는 建築文化的 羞恥와 民族自尊心的 패배의식의 상징물로 남게 됨으로써 오히려 逆作用을 불러 일으키는 결과를 낳았다.

해방이후, 이들 왜식건축물들은 기존의 한국 전통건축과 별개의 유형으로 각각 병립하면서도 전통건축의 平面類型과 形態構造를 변화시키는데 영향을 주었던 것은 사실이나 國民意識과 생활유형 사이에 남아있는 식민치하의 잔재가 민족의식을 재정립하고 傳統建築의 「체」를 진화발전시키는데 오히려 방해요인으로 걸림돌이 되어온 것도 부인할 수 없다.

결국, 日本植民地時代를 이씨조선의 몰락과 함께 개조된 近世期라고 한다면, 이시대는 과거 한국전통건축의 접합없이 시작되어 유아기조차 없이 끝나버린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藝術思潮를 흡수할 수 있는 일반대중의 의식이 싹틀 수 없었으며, 또한 식민지책략에 의한 소용돌이 속에서 遠心的으로 소개된 새로운 建築思潮는 피상적으로 또 국부적으로 수행되었으며 또다시 6·25라는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한국건축사는 엄청난 방향 전환의 계기를 맞게 되었다.

韓國建築思潮의 契機수정

1953년에 끝이난 6·25사변은 결과적으로 5000년 한국건축역사에 있어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變曲點에 해당하는 매우 중요한 시점을 제시하고 있다.

때마침 전국 대도시는 대부분 6·25전쟁으로 인하여 건축이 없는 「無」의 지역으로 변하게된 배경도 있었으나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戰後 한국정치, 사회, 문화, 예술등 각분야에 걸쳐서 서구식 近代思潮 특히 「美國의 것」을 近代化的 Model로 인식하여 비판없이 그대로 모방하기 시작하게 됨으로써 소위 「서구근대건축 모방시대」가 도래된 것이다.

이렇게 시작된 건축이 소위 한국의 근대건축

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시대이후 한국건축은 분명히 서구식 근대건축 다시 말해서 그 당시 서구의 技能主義建築과 도시설계를 위한 제반 方法論에 의하여 본격적으로 시도되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유럽서양건축이 유럽문화예술의 토양위에서 상호발전 변모되어 갔던 실예와는 판이하게 韓國建築을 傳統建築이라고 하는 특수개념의 테두리안에 묶어둔채, 政府와 일반대중은 서구식 近代建築方式을 있는 그대로 한국의 土壤위에 이식하기 위하여 근대화를 위한 Prototype로서 성립시키게 된 셈이다. 이것은 본질적 의미에서 歷史흐름에 단절을 의미하며 아울러 전혀 성질이 다른 外來 建築文化의 結晶化의 시도를 의미한다.

그결과 傳統建築은 文化遺産으로 조차 보호받기에 소홀히 되는 기현상을 감수해야 했고, 다른 한편으로 어느사이에 Neo 韓國近代建築으로서 실용적이며, 力動的인 서구건축이 주인공 행세를 하면서 일반대중에게 「近代化의 불사조」로서 정착되어 갔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은 제3공화국 이후 경제개발5개년장기계획이 수립되면서부터 가속으로 전국토에 걸쳐서 변모시켰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주요 行政商業建物들이 건축되어지고 都市再開發 혹은 新都市開發이 이루어지고 大單位 아파트團地가 조성되었으며 국토개발이라는 經濟開發次元에서 교통망이 新設擴張되거나 대규모 공장프렌트가 곳곳에 건설되었고 농촌지역에는 취락구조사업으로 傳統時代의 마을모습은 近代建築樣式의 모습으로 바뀌지게 되었다. 이른바 선진공업국의 기틀을 세우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중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아프리카지역에 해외건설사업이 수출되는등 건설기술이 축적되고 그동안 다양한 건축기자재를 생산할 수 있게 됨으로써 한국에도 High-Tech 時代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80年代 韓國建築의 沒價値性

그동안 한국은 세계가 놀라울 정도로 경이적

인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한국의 建築現實은 분명히 과거 20년이래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대도시 혹은 중소도시, 시골마을할 것 없이 전혀 다른 건축모습으로 바뀌 졌으며 近代生活形式을 이끄는 새로운 地域 Pattern으로 변모되었다.

불과 36년전 전쟁폐허의 잿더미에서 거대한 국제도시로 서울이 변모되었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보기드문 實例가 아닐 수 없다.

서울은 확실히 높아졌고, 넓어졌다. 또 지역에 따라 西歐都市에 온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깔끔하고 품위있는 건축환경은 낭만적이기도 하다. 市民을 위한 많은 문화위락시설등이 개발되었다. 그동안 국제현상을 통하거나 혹은 外國 有名設計事務所의 설계참여로 인하여 국제수준의 건축물들이 서울의 建築環境모습을 더욱 현대화시켰다. 바둑판식 도로망과 어울린 성냥갑모양들의 아파트群들은 새로운 서울의 모습을 창조했으며 새로운 建築文化의 요소로 등장하였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都市의 모습, 建築造形의 모습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이 진정한 우리 서울의 모습인가? 全體韓國을 대표하는 수도都市인가? 이 질문은 한국현대건축의 좌표를 묻는 질문에 속하지마는 결국 「未來」에 대한 韓國像과 무관할 수 없다. 왜냐하면 건축은 國家社會의 성격과 內部的 숨어있는 文化文明을 시각적으로 응집해 놓은 結晶體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서울의 얼굴은 있으나 서구근대건축과 동질의 Uniform化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 기인한다. 韓國人의 삶을 담고 있는 그릇이 구조된 제품처럼... 예를 들면 서울은 “해가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대영제국의 London”, 혹은 “Eiffel탑이 서 있는 프랑스의 Paris”, 더더욱이 “美國大陸에 있는 New York의 아날로지”가 될 수 없다.

以上の 문제에 나타나고 있는 現代韓國建築의 沒價値性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원인을 찾

아 볼 수 있다.

첫째 : 근본적으로 1945년이후 역시 西歐近代建築을 우리의 韓國傳統建築의 테두리안에서 수용 진화시킬 수 있는 올바른 국민의식과 능력이 미천하였다.

둘째 : 지난 반세기동안 국가목표가 「近代化」 「經濟開發」이었다. 그러므로 現代 韓國建築 역시 수용-모방이라고 하는 일반적 방법을 벗어 나지 못했다.

그결과 建築形態 造形的인 면에서 볼 때 다음과 같은 沒價値現象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 : Koreanismus(韓國文化의 속성 = 韓國文化藝術의 동질성(Identitaet)가 不在하는 가운데 西歐式 Moderne한 建築類風이 유행하게 되었다.

둘째 :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양식이 다양하지 않고 있는 것은 내재하고 있는 韓國人의 성격때문이다.

셋째 : 物理的인 多量生産供給에 치중한 나머지 아름다운 금수강산(韓國 고유한 자연환경)을 오히려 建築群에 의하여 해치는 건축환경을 조성하고 있음이 적지않다.

넷째 : 國土計劃 차원에서 균형있고 조화있는 건축환경발전을 이룩하지 못했다.

다섯째 : 단기적인 行政 政策을 위한 건축환경 개발이 수행되어 왔으므로 근본적으로 人間(國民)을 위한 空間創出에 소홀하였다. 즉 市民을 위한 都市, 이용자를 위한 건물, 보행자를 위한 가로가 되지 못했다.

結 論

오늘날 2000년대를 바라보는 韓國人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다시 말해서 미래 韓國建築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 것인가? 하는 질문과 일관한다.

먼저 방향제시부터 한다면 서울은 서울이 되어야 한다. 韓國의 서울이 되어야 하며, 이것은 世界文化를 풍부하게 하는 길이며, 人類共同 삶의 가치이다. 과거의 장구한 歷史에서 체험되어

진 사실의 痕跡 위에서 오직 서울에서 체험되어진 과거 歷史의 「체」의 이음이 되어야 한다. 혹은 과거 歷史의 「체」와 함께 共存의 지혜를 표현해야 하며, 현대와 조화롭게 연결시킨 現代 都市 서울이 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Rome는 Rome이어야 하며 Paris는 Paris이어야 한다. 그렇다고 이조시대 「한양」으로 후퇴하는 어리석은 復古主義를 부르짖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상의 建築宣言은 특징과 개성이 있으면서 Genius Losi로서의 建築領域을 뜻한다. 지구상에 서울은 하나이며 하나로서의 존재가치가 있어야 한다.

서울은 고유한 얼굴을 가지고 있다. 그 얼굴은 2가지 성분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하나는 地理, 地形, 氣候등을 포함하고 있는 자연적 요소이며, 또 하나의 성분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建築環境을 뜻한다. 분명히 서울은 1876년이후에 생긴 新都市가 아니다. 적어도, 과거 李朝 500년 역사위에 생긴 한반도의 수도도시로서 韓國歷史의 상징적 都市이며, 「어제」라는 인간의 고귀한 삶의 체험이 얹혀있는 歷史의 도시이다.

인간은 새로운 것에서 生의 신비를 느끼기도 하지만 「과거」라는 失驗의 시간의 축적속에서 生의 고귀한 존재가치와 의미를 찾으려 아울러 미래를 창조하는 삶의 哲學的 思考過程을 유지하기도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建築行爲를 美的 造形物이라는 시간적 상징성 그 以上으로 「과거」에서 「미래」에 이르는 歷史의 궤적위에서 人間存在와 가치의 表徵을 의미한다고 할때 매우 중요한 歷史的, 社會的 책임이 수반된다.

그러므로 어느 특정지역을 개발하고 건축물을 설계한다는 作爲는 이러한 논리위에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유럽의 傳統都市들은 저마다 都市生命력을 가꾸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옛 선조시대의 歷史의 「체」를 오늘에 재조명하고 사랑하는 아이들이 살아갈 내일을 위해 오늘을 새겨넣는 즉, 空間的 時間을 초월하고 時間的 空間을 現象化하기 위해서 진지하게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건축법과 도시계획

법을 통하여 실현시키고 있다.

끝으로 韓國傳統建築을 진화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론은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차후 논의하기로 하고 이 글을 다시 요약하면 한국의 近代建築史는 암흑기였으며, 사변적으로 시작된 現代建築史 역시 급격한 외부의 遠心的 작용에 의해서 하향식으로 파급될 수 밖에 없었던 시대적 배경을 안고 있다. 그후 模造建築文化는 과거 전통건축에 대응하여 아무런 저항 없이 오히려 국민의 각광속에서 문화시민의 척도로서 향유되어온 변질된 國民意識(= 現代 韓國建築) 역시 우리는 주시해야 한다.

이러한 轉換期的 현상에서 韓國建築의 동질성(Identitaet)이 반드시 그리고 하루속히 회복되어져야 한다.

우리 눈앞에 다가온 2000년대 미래 韓國建築을 韓國의 大地위에 韓國人의 사고와 韓國文化에 의해서 창출된 결정체를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오늘」이 時代는 이러한 맥락에서 節點이 되어야 한다. 늦어질수록 변질되어진 건축환경과 함께 韓國人의 人間型까지 異質的 모습으로 변형되는 어려운 국면으로 확장되어 갈 것이다.

新·舊의 유리건물

聖에노그센터

글래고스에 있는, 6,500만 파운드의 비용이 든 상점들과 오락관 건축물은 스코틀랜드의 발력있는 기술의 전통을 반영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2,500t의 강철과 3만㎡의 유리를 사용하였다.

스코틀랜드의 주요 산업도시에 있는 구철도역에 세워진 새로운 성에노크센터는 길이가 250m, 높이가 32m이며, 도시미관 회복에 있어 주목할만 하고 상상력이 풍부한 건물이다.

유리를 사용하는 데는 몇가지 특별한 문제점이 있다. 특히 여름에는 온실효과가 생겨 센터 내부가 너무 과열된다. 건물 꼭대기에 열이 빠져나갈 수 있는 통풍구를 설치해 놓았을뿐만 아니라, 컴퓨터로 작동

되는 독창적인 블라인드를 건물에 설치하여, 일정한 시간에 따라 미리 결정된 위치로 회전하도록 하여, 건물 내에서 물건을 사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늘을 제공해 준다.

그 건물은 쇼핑센터의 재래식 분위기인 안을 들여다보는 분위기를 줄일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건물 외부는 서비스 및 배달을 위한 용도로 주로 사용된다.

왕립박물관

스코틀랜드의 왕립 박물관은 엄청난 기술적, 자연적, 예술적 소장품을 갖추고 있으며, 현재 900만 파운드가 드는 복원공사를 계획하고 있다.

이 박물관의 중앙홀은 지붕창을 전부 교체하는 것을 포함한 대대적인 보수공사를 막 마

쳤다. 건축 당시 이 건물은 건축에 유리를 사용하는 새로운 시대적 건물로 대표되어졌고, 그 이전에는 10년 전에 세워진 크리스탈 팰리스가 있으며, 이 건물은 런던의 하이드 공원에 세워진 거대한 유리 및 철강 전시장이다.

그 건물의 설계자가 의도한 바는 이 건물이 금속 기둥에 의해 받쳐진 일련의 발코니로 된 전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며, 무제한적인 빛과 충분한 공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구식의 천장 대신 투명한 유리를 사용한 중앙의 방과는 달리 다른 방들의 자연광선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불투명한 유리가 설치되어 있다.

박물관측에 따르면, 천연광선을 이용하면 좀 더 상상력이 풍부한 전시를 할 수 있고, 섬유, 나비, 깃털 달린 새들과 같은 다루기 힘든 전시물들을 더 잘 보존할 수 있다고 한다.